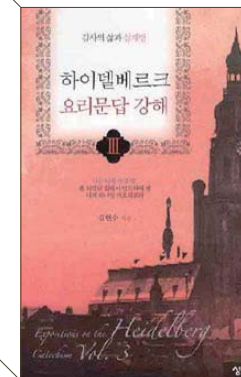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해 시리즈 III

## 위로받는 성도의 삶

##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김현수 저 | 성악



보통 기독교인들은 성경만 있으면 됐지 아니 신조나 요리문답이 왜 필요한가라고 말한다. 그리고 성경과 교리 둘 중에 성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리문답서나 신앙고백서는 권위도 없고 별 도움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견해는 성경과 신앙고백서와의 관계에서 한가지만을 아는 것이다. 바로 이승구 박사는 이런 태도에 대하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비록 부족함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신조에 표현된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잘 표현하려고 시도한 것이라는 믿음에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들의 신앙고백을 철저하게 성경에 충실하여 따르기 위하여 먼저 자신들의 지식과 신앙으로 함께 고백을 통하여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었다.

금번에 출판된 이승구 박사의 3번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강해 위로받는 성도의 삶은 흔탁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도전하면서 그가 성경적이면서도 개혁신학적인 관점에서 분명하게 그 답을 제시하고 있다. 20세기의 기독교 지성인 Francis Schaffer의 기념비적 작품인 How Should We then Live?에서도 같은 말이 사용되었다. 한국의 프란시스 쉐이퍼로 일컬음을 받는 이승구 박사의 요리 문답 강해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의 해석을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지혜를 다루고 있다.



**안명준** 중앙대학교출입, 합동신학대학원(M.Div.),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Th.M.),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Th.M.), University of Pretoria(Ph.D.), (현)평택대학교 피어선신학전문대학원 교수, 피어선기념성경연구원 원장, 저서와 공저(성경적 조직신학, 칼빈의 해석학과 신학의 유산, 칼빈의 성경해석학, 신학적 해석학 상, 하, 칼빈신학 2009, 칼빈신학과 한국신학, 칼빈과 한국교회, 한국교회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칼빈신학해설, 최근의 칼빈연구, 기독교 알기)

책의 첫 부분인 1부에서 위로 받은 성도들의 삶: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의 감사의 표현으로서의 삶을 다루고 있다. 책은 3 가지를 다루는데, 첫 번째로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이다. 두 번째로 기독교적 삶의 구조를 다루고 세 번째로 중생에서 나오는 선행을 드러내며 사는 삶을 다룬다. 이 3가지는 이 책의 핵심적 사상이며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 나머지 제 2부 하나님의 법과 위로 받은 성도의 삶이란 제목하에서는 10 십계명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상과 우리가 마주치는 사건에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의 교훈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승구 박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구원 받은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자연스런 반응이라고 한다. 그런데 복음을 왜곡하는 잘못된 경우에 대하여 2가지를 먼저 설명한다. 첫째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방종의 삶을 사는 반율법주의자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두 번째로 공로로 구원을 주장하는 율법주의 자들에 대한 경고이다.

그렇다면 복음에 대한 바른 반응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바로 저자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면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를 설명한다. 첫 번째로 그것은 복음에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만 의존하며 사는 것이라고 한다. 주의 자비만이 우리 자신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근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다. 둘째로 구주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삶에서 열심히 주님의 뜻을 행해 나가는 일에 힘쓰는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주의 뜻을 알기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고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추구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 힘쓰는 것이라고 한다. 성령님을 의존해서 살게 되면 영적인 선(spiritual good)을 이룬다고 하며 이것이야말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한다.

저자는 이런 영적인 선행은 유익이 몇 가지 있다고 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일이라고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둘째로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신앙에 대해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기능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이를 절대적으로 생각하거나 표현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셋째로 우리의 선행은 진도에 유익이 된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이 참된 성도는 주님만을 의존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한다.

이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살기 위해서는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살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아니”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저자는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이들은 지금 여기서도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여 온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임 받는 것이라 한다. 옛사람으로는 죽은 이들이고 “

이미” 새사람을 입었다고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영광에 “이미” 참여하고 있으나 그 온전한 영광이 다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여기에 “아직아니”의 요소가 있다고 한다. 부활과 영화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와 “아직아니”의 긴장 속에서 이 땅에서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의 법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해시리즈 III가 소중한 안내서의 역할을 한다. 이 책의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다.

첫째는 저자는 개혁주의 정통 신학자로서 그의 성경


해석적 지식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접근한다. 그것은 성경적 조직신학적 설명이 뛰어난 점이다. 보통 교리적인 면에 치우치다 보면 성경적 해석이 약하기 쉬운데, 이 책은 성경적 근거에 항상 기초를 두면서 하이델베르크의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정통 개혁신학의 관점 속에서 이 요리문답을 강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강해의 풍부한 내용을 위해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칼빈의 주석, B. S. Childs, Keil and Delitzsch,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의 필립 멜랑히톤의 신학총론, 미국 CRC 교단의 새로운 번역을 비교하며, 외국의 권위는 주석 뿐만 아니라 한국의 박윤선 박사과 김홍전 박사나 최낙재 교수의 글을 소개하는 풍성함이 있다. 이런 학문적 통찰을 통하여 요리 문답 강해서를 한층더 높은 수준의 해석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신학적 주제에 조직신학적 견고한 강해와 더불어 저자의 특유한 신학적 경향을 보여주는 성경

신학적 접근이 강해의 독특성을 보여준다. 기존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G. Vos의 관점에서 보완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 4 계명 주일 문제를 다룰 때 안식일에서 주일로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G. Vos의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종말론적 의미를 강조한다.

네 번째 삶의 구체적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이슈들에 대하여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것들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제시되었다. 예를 들면 동양적 효 문제, 기독교 가정, 사회적 생명운동, 혼전 동거와 계약 결혼, 동성애 문제를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 하이델베르크 3권 모두가 하나님 나라 신학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작은 아름다운 개혁파 교의 학이라고 저자가 불리워지기 바라는 주장에 동의하면서 서평을 맺는다. 

## (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재정보고 (2015년 7월 31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경상수입	이사회비	960,000	인건비	일반급여	3,600,000
	임원회비	650,000		기타급여	637,000
	일반회비	6,225,000		소계	4,237,000
	기관후원금	3,450,000		사무실임대료	550,000
	월보구독료	649,000	경상비	사무실관리비	464,000
	학술지원금	2,000,000		통신비	175,570
	연구지원금	6,000,000		우편료	393,090
	VIEW후원금	1,000,000		소모품비	533,460
	CTC후원금	310,000		비품	177,810
	기타후원금	1,000,000		식비	460,750
				복리후생비	612,580
				퇴직연금	293,240
				교육비	45,900
기타수입	모인턴한금	30,000		회약비	122,470
	예수금	319,190		회계용역비	330,000
	소계	515,645		기타	390,784
				소계	4,549,654
학회	학회이사회비	100,000	연구지원비	연구지원금	6,000,000
	학술자심사비	1,010,000		CTC후원금	318,900
	학술지게재료	300,000		VIEW후원금	300,000
	학회기타수입	0		학술지원금	4,000,000
	소계	1,410,000		소계	10,618,900
당월 수입액		24,003,190	당월 지출액		4,824,860
전월 이월액		39,871,268	차월 이월액		36,400,834

\* 회비수입 납부일 기준 적용 (일부 CMS 및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시 납부일과 입금일에 차이가 있습니다.)

## (주) 세상바로보기 재정보고 (2015년 7월 31일 마감기준)

수입 항목	세부 항목	금액	지출 항목	세부 항목	금액
광고수입	월광고비	1,550,000	인건비	직원급여	1,900,000
				소계	1,900,000
			제작비	교정비	160,000
				편집비	300,000
기타수입	소계	1,550,000		디자인비	990,000
	월드뷰판매비	2,500,000		인쇄비	2,062,500
	도서판매비	37,600		소계	3,512,500
	기타수입	165,560	경상비	사무실임대료	275,000
				복리후생비	289,100
				퇴직연금	137,760
				관리비	30,000
				회계용역비	330,000
				소모품비	98,000
				식비	11,000
				소계	1,170,860
			기타	세금	49,740
				기타	2,500
미디어이카데미	소계	2,703,160		소계	52,240
	미디어기타수입	3,700,000	미디어이카데미	어린이영상캠프	1,101,600
	미디어장학등록	0		미디어기타	13,500
	소계	3,700,000		소계	1,115,100
당월 수입액		7,953,160	당월 지출액		7,750,700
전월 이월액		42,566,634	차월 이월액		42,769,094

※(주)세상바로보기는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영리법인으로 월드뷰 발행을 대행합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재정 내역은 본지와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통하여 매월 보고합니다.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 7월 31일 마감)

### 회원후원

2천5백 박진호 3천 김성권 3천5백 Susanto Agus 김경현 김경휘 김고은 김봉현 김재별 김재별 김성욱 김영주 김정원 김진호 김태경 김태우 김형근 김화원 박상훈 박원근 박지만 생명의강 성관수 안용주 영음사 유성욱 이수현 장재수 장세열 정필규 정필화 조성진 조영래 지경순 진성자 최병진 최원길 허태실 함께하는교회 5천 공승진 구상덕 구재환 권명준 권지연 김경희 김기현 김미정 김원민 김성욱 김성온 김성찬 김승택 김영문 김은경 김성영 김성진 김태영 김태윤 김태아 김현경 김해정 노승욱 노주하 박광재 박상균 박승룡 박천규 배도환 발강철 손재윤 손영길 송동민 송시설 송호욱 신기혁 심정하 안성희 우수민 유은자 유종열 윤경숙 윤종선 윤주영 이경미 이근배 이길수 이노윤 이덕재 이민화 이수민 이영훈 이은미 이만수 이종희 이항숙 이소은 임찬식 임형준 임윤숙 정한일 정광학 전종국 정봉현 정한국 조사무엘 조은아 조인진 지미경 최광수 최동희 최영태 한배선 홍승기 6천 구재형 7천 김동찬 윤해정 7천5백 강찬진 고상섭 김나실 김상욱 김은민 김재우 박대희 박한민 방선기 이병주 이세호 이은수 이자은 전영식 정필길 정찬주 진영구 1만 David Han Lee chun hee suk 기일현 강동진 강민창 강석현 강승모 강연정 강은정 강은주 강효식 고길현 고선욱 고연경 고재호 박은이 곡창민 구준희 권경호 권민규 권순범 김원명 김경식 김경식 김경원 김경호 김고은 김광순 김규욱 김근배 김기현 김남일 김남진 김동준 김막미 김미혜 김민성 김범식 김병국 김보경 김봉래 김상범 김성경 김성규 김성민 김성인 김성진 김세령 김세연 김세중 김소과 김수진 김승남 김승호 김아람 김아론 김양호 김영숙 김영원 김영록 김용석 김윤권 김윤정 김은덕 김은영 김은정 김은혜 김은혜 김은혜 김재정 김경모 김정모 김정준 김정진 김정호 김정화 김종국 김주영 김준희 김중훈 김지민 김진성 김진아 김창현 김철수 김태룡 김태진 김태호 김판민 김 혁 김현정 김형길 김혜정 김홍식 김홍석 김효석 김효숙 나동훈 나윤숙 남서희 리영환 류지호 류현모 마민호 문재환 박경원 박계호 박기연 박능안 박두석 박두한 박복애 박상록 박성인 박승호 박시은 박애란 박용석 박원국 박은영 박은주 박종국 박종훈 박종현 박준모 박준영 박치현 박진규 박창규 박창원 박혜일 박현희 박혜경 박화주 배성진 배세원 배아론 배인교 배지연 백경은 백은식 백현준 변영숙 변희지 부친광안교회 빛과소금교회 서유미 서정연 서화진 서광원 소종화 송영규 손하은 손하나 손현미 송승철 송철호 송현미 신강규 신동민 신상형 신성자 신자영 신진선 신진용 신현정 신현주 신형균 신호기 신희영 심영섭 심재훈 안남주 안병열 안 석 안영희 안윤숙 양성진 양예찬 양형모 양혜영 양혜원 양희석 연혜민 오경국 오성호 오은열 오지훈 옥재호 우한기 유근호 유경상 유영숙 유가나 유기성 유동준 유상원 유선덕 유영준 유은희 유익선 유지환 유창은 유해무 유화원 유희진 윤영섭 윤상현 윤숙자 윤천석 이광두 이 강 이경직 이계실 이관철 이규현 이기호 이길규 이길원 이덕영 이동훈 이영동 이영택 이명숙 이명숙 이영현 이윤원 이병수 이봉근 이상규 이상근 이상무 이상수 이상환 이선복 이상수 이상윤 이시영 이연구 이연희 이요한 이윤훈 이원배 이원재 이원준 이윤석 이윤재 이윤희 이은혜 이장규 이장기 이장길 이장현 이종국 이종환 이준성 이지숙 이지연 이자연 이자훈 이진영 이희성 이혜리 이호선 이희일 이희진 임동진 임필립 임소현 임우진 임일택 임재광 임지연 임준택 임현택 장승기 장승재 장승화 장영창 장욱경 정용훈 정은혜양종태 장민숙 장진수 장창수 장태준 전동일 전명희 전성규 전종호 전현영 정경식 정동섭 정문선 정세준 정용수 정은경 정은희 정장숙 정진우 정현규 정화원 제양규 조경택 조미연 조백철 조성은 조승희 조용현 조은국 조은성 조은향 조아수 조주영 조주영 조지현 조현용 조혜경 조혜진 주경식 차봉준 차유림 차정규 최삼열 최석호 최세진 최승호 최 영 최영석 최윤영 최종민 최진우 최한빈 최한정 최해경 추진연 태영숙 하성만 하진호 하한진 한민균 한해실 한화진 한희수 허연 허현영 허 연 현승근 현하나 홍경희 홍규국 홍신호 홍세기 홍양희 홍정식 홍준호 황기철 황도용 황성선 황세현 황익서 황인경 황태연 황혜숙 황혜정 1만5천 김선화 김효순 장상섭 조영숙 최동원 2만 장대로 강용민 김경호 김수홍 김용식 김민숙 김창호 노원환 배성민 변우진 석지원 우시정 이 건 이기서 이명희 이만아 임영 장경근 조창근 한진영 3만 김경민 김동현 김봉룡 김요환 문석윤 문준호 박신현 박영주 사성록 오익성 오하나 우병훈 이근호 이예진 이은실 임희욱 장수영 조우성 최용준 추태화 황정진 4만 김세광 최상두 5만 김민철 김성택 김성민 박문식 박영철 서진희 신국원 윤석찬 정은애 정화정 조성태 최현일 한윤식 현은자 8만 권정아 10만 김미영 김의원 김태환 박상은 손봉호 송인규 양민영 윤원철 이기섭 전광식 12만 김성록 조애래 최정필 21만 정영록 30만 김승욱 36만 김정효 100만 권순은 101만 이경숙 130만 홍명식 607만 최태연

계 17,794,000원

### 기관후원금

5만 개봉교회, 글로벌한가족교회, 다운공동체교회, 대구서교회, 마포중앙교회, 새길침례교회, 성덕중앙교회, 신반포중앙교회, 중앙대학안교회  
10만 금성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부친침례교회, 세로남교회, 성덕교회, 송탄제일교회, 안악교회, 예심교회, 주님의은혜교회, 천안중앙장로교회, 함동교회  
20만 삼일교회, 서울영동교회, 수영로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50만 사랑의교회, 주님의심자가교회  
100만 엘비전

계 4,450,000원

### 광고후원

삼성전자, 엘타워, I&S법무법인, 홍성사, DCTV, 오히유스코리아

회원 여러분들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미납회비가 이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정공고]

### 하반기 해외석학 세미나가 취소되었습니다

8월 28일에 예정되었던 바키대학교 부총장 Gwen Dewey의 세미나가 취소되었습니다. 알찬 세미나를 준비하여 찾아뵙도록 하였습니다.

##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기초과정 12기 모집]

1인 미디어 시대, 가장 중요한 미디어는 사람입니다. 든든한 신앙의 기초와 기독교세계관으로 훈련된 미디어 군사를 모집합니다. 언론과 방송을 향한 미디어 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 교육기간 : 10월 10일(토) ~ 2016년 1월 29일(금) 예정,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 6시
- 접수마감 : 2015년 9월 11일 (금) 18:00까지 상시모집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cmca.or.kr)
-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후 선발
- 교육장소 : SICA(양재동 소재), CGN-TV(서빙고동 소재)
- 교육대상 :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기독교영상제작 관심자 (세례교인, 1977년 이후 출생자)
- 교육비 : 외부기관 후원으로 수업료 무료 / 등록금 350,000원
- 문의: 홍정석 간사 Tel 02-745-7237  
E-mail cmca@worldview.or.kr

- 일시 8월 21일(금)-22일(토) 1박2일
- 장소 별도공지

## 제32회 기독교학문학회 발표논문 모집

기독교학문연구회는 각 학문분야별 기독교적 학문연구 발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연2회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융복합과 기독교학문"을 주제로 하여 11월 7일(토) 성균관대학교에서 실시합니다. 신진학자 및 기독교학문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바랍니다.

- 일시 2015년 11월 7일(토)
- 장소 성균관대학교
- 주제 융복합과 기독교 학문
- 일정 발표신청 논문모집 마감 : 2015. 9.21(월) /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
- ※ 꼭 기일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 ※ 약속을 지키는 학술대회 문화의 정착과 복합학문 성격을 띤 학회의 내실화를 위해 마감기간을 지키시지 않는 경우, 발표에 제한이 있습니다.
- ※ 학회주제와 관련한 논문이 발표 우선권을 갖습니다.
- ※ 등록비는 당일 접수할 예정이며, 20,000원(프로시딩 제작 및 만찬포함)/ 학부 및 대학원생은 10,000원 입니다.
- 일정 02-3272-4967 (담당: 신효영 간사)

## [임원수련회] 2015년 임원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임원수련회가 2015년 8월에 있습니다. 오랜만에 준비한 자리오니 임원분들께서는 필히 참석하여 주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8월 21(금)-22일(토) 1박2일
- 장소 별도공지

## 9월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일정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제32회 기독교학문학회 논문발표 신청마감
7	22	
8	23	
9	24	
10	25	「월드뷰」 10월호 발행 대학원생 모임
11	26	12기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접수마감
12	27	국민일보 와이드면 월드뷰 공동칼럼 발행
13	28	
14	29	
15	30	신앙과 학문 제20권 3호 발행

- 9/11(금) 12기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접수마감
- 9/12(토) 국민일보 와이드면 월드뷰 공동칼럼 발행
- 9/21(월) 제32회 기독교학문학회 논문발표 신청마감
- 9/25(금) 월드뷰 10월호 발행
- 9/25(금) 대학원생 모임 (오후 5시 30분, 삼일교회 C관 2층)
- 9/30(수) 신앙과 학문 제20권 3호 발행



##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열심히 달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선물, 부르심이라 생각하며 말이죠.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아날까  
성실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아날까  
열심히 달립니다.

내 손을 거쳐 간 수많은 일들.  
열심히 섬깁니다.  
성실하게 헌신합니다.

그러다 문득 묻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지?

오늘도 성실하게 살았다는 생각만이 남아  
무엇을 왜 하는지 한번쯤 되돌아보지 않고  
그저 헌신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나만큼 헌신하면 대단한 거라 으스스하며  
열심히 하는 나에게 되묻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순례자에게는 가야할 곳이,  
우리에게는 달리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죠.  
그 목적은 결코 원가를 열심히 하는데 있지 않고  
무릎 꿇음과 침묵에 있음도 알아야겠죠.

성찰 없는 헌신은 광신적인 행동을 낳고  
헌신 없는 성찰은 모든 행동을 마비시킨다. \_John MacKay

우리는 뭇 땀에 달리고 있나요?

### 樂與政通

자왕, 음악과 정치는 서로 통한다. 그 나라에서 불리는 노래를 들으면, 그 나라의 정치를 알 수 있다 했다.  
EDM, 우리 문화가 오늘 갈때까지 가보는 즐기는 음악 어떤 문화인지 단박에 알 수 있다.

다원주의 시대 세계관 운동은 이야기 여야 한다.  
포스트모던 파편화, 이야기/ 질서의 구조시대를 넘어 이야기에 방향성을 담아 바른 문제제기를 행해라.  
질서는 모든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순환론에 빠진. 질서는 규칙/인과

제32회 기독교학문학회

# 융복합과 기독교학문

2015.11.7 (토)

오전 10시~오후 6시

성균관대학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 대학원 및 분과별 발표논문 모집

학회 주제와 관련한 논문이 우선발표권을 갖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학술대회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마감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 발표 제한이 있습니다.

발표신청마감일 : 9/21(월), 논문제출마감일 : 10/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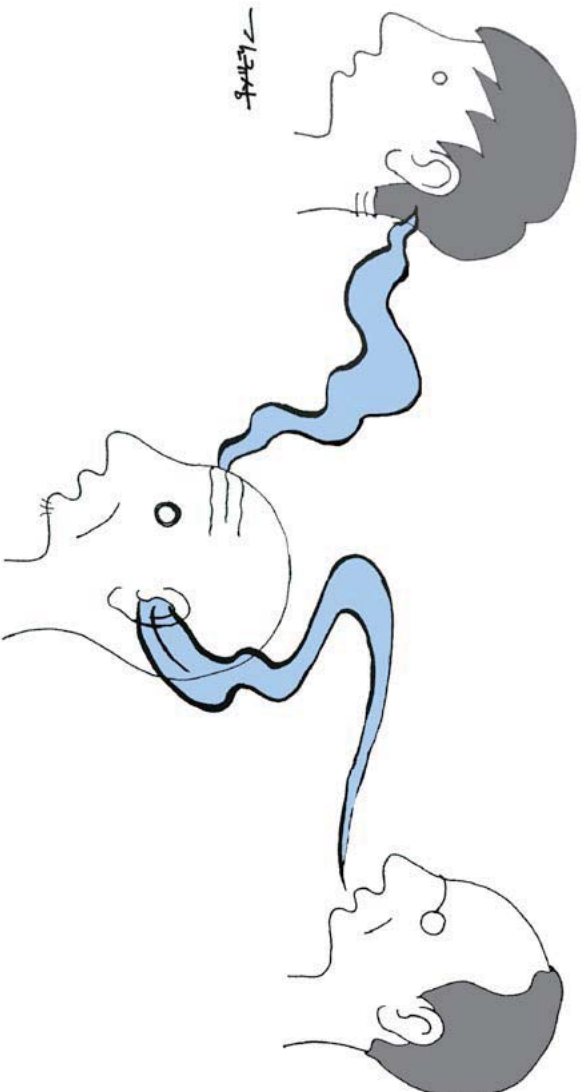
접수처 : 홈페이지 오른쪽하단 신청버튼 (접수시 안내메일이 발송됩니다.)

>>> 대학원생 발표논문 중 소정의 심사를 거쳐 우수논문을 선정, 우수논문상(상금 및 상장)을 수여합니다.  
>>> 20,000원 (학부 및 대학원생 10,000원), 신청은 당일 등록대에서만 접수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문의 02-3272-4967 (담당 신호영)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http://www.worldview.or.kr)

QR코드로 바로가기 >>





## 자복된 죄인

중병에 걸린 아버지를 극진히 간호하고 있는 아들이  
자신의 아들(환자의 손자)에게 시네마에 가서 약을  
지어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심부름 간 놈이  
돌아오지 않아 화가 좀 났다.

신음하는 아버지를 들여다보면서 혼자서 하는 말:  
“이 자식이 죽었나? 살았나?”

Illustr by 김광성